

우리 함께

한 편

더 자라는

시간

2025 MAY

Vol. 686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05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월호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달려가고 있나요?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우리 웃을 수



여전히 함께 살기
좋은 세상에서

함께 즐길 수



뜻밖의 풍경
태안

내일 좋을 수



시대를 이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야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5월 1일 | **통권** 686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Special
THEME

04. 월간 수토픽

한국수자원공사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
가족친화경영

우리
웃을 수

08. INTRO

서한나, 『드라마』 중에서

10. 일상적 사유

여전히 함께 살기
좋은 세상에서

14. 일상의 쓸모

함께 해 더 빛나는
세기의 소울메이트

함께
즐길 수

22. 다시갈지도

뜻밖의 풍경
태안

30. 보물여지도

태안이
그린 동화 속으로

내일
좋을 수

40. 수타벅스가 간다

오늘도 우리는 맑음
연천포천권지사

44. Focus on

물관리 우주 시대 개막 카운트
세계 첫 수자원위성개발

48. Live on

- 필리핀 신도시 물 인프라 혁신 파트너
- 국제 국회의장단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52. News on

16. 사적인 투어

진해군항제를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20. 오늘 일기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34. 사람人지도

자연과 나만의 오롯한 시간
요가 안내자 최효진

38. 태안 한 상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꽃게강정

54. 온전한 지구

기후변화와 러브버그

56. Report on

커피가 사라진 세상

58. 워터피디아

59. 방울특파원

60. 방울사서함

한국수자원공사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

가족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5월.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부모들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에 앞장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족친화경영을 살펴본다.

글. 편집실 사진. 황지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한국수자원공사 정문을 따라 10여 분을 걸어 들어가면 나타나는 물사랑 어린이집. 출근하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등원한 아이들이 삼삼오오 친구들과 모여 함께 블록을 맞추고, 종이를 접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물사랑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 교사진에 의한 질 높은 보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장 내 보육시설이다. 대전 본사와 낙동강유역본부에 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보육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9월부터는 밤 9시까지 야간연장 보육 서비스가 도입되며 예기치 못하게 늦은 퇴근을 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

가족친화경영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한국수자원공사

물 재해 대응과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가족들. 이러한 이유로 전체 사업장 중 도심에 있는 사업장은 약 13%에 불과하고, 순환근무제도로 비연고지 근무와 주말 부부 비율이 높다. 업무 특성상 일과 출산, 육아 병행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노사가 공동으로 '가족친화 경영'을 선언하고, 가족친화경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1년간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K-water'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장 먼저 육아휴직을 간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것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One-stop 육아휴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할 때 나누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 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휴가 일수도 당초 10일에서 20일까지 확대하는 등 가족친화적 휴가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승진 걱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승진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승진이 지연된다거나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을 첫째, 둘째 자녀 구분 없이 연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 중이라도 승진 자격

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 성적도 동일 직급 평균점보다 휴직 직전년도 점수가 높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으로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육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도 마련했다. 격주 4일 근무가 가능한 근무시간 선택제, 육아기 재택근무제 등 아이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아이돌봄 3·3·6제도'는 영아기 3개월, 초등학교 입학기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 후 적응기 6개월의 총 12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급여감소 없이 의무적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한 제도다. 이로써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녀 돌봄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준다.



물사랑어린이집 친구들의 우리 가족 자랑



조우진 어린이

우리 엄마는 음식을 잘해요. 특히 콩나물 반찬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엄마랑 아빠랑 놀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볼록 놀이도 하고 인형 놀이도 하고, 키즈 카페도 같이 가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끼리 친하게 지낼래요!



정연서 어린이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맨날 놀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 주시거든요. 사실 엄마, 아빠한테 편지 쓸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다 못 적었어요. 여름에 바다 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조개 주우러 같이 바다 가요!

이외에도 임신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한 태아검진휴가 일수 확대, 산전검사비와 난임시술비 지원, 출산 축하금 증액 등 자녀 돌봄뿐 아니라 출산을 준비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제도로 정비했다.

이와 같은 제도혁신 노력과 내부 인식변화의 결과로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0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육아휴직 직원 중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은 2019년 17.3%에서 2024년 44.1%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육아시간사용 사무외출 제도*도 2022년에는 대상 직원의 32.5%, 2023년에는 48.8%, 2024년에는 55.1%가 사용하여 매년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성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육아공백 제로 K-water형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직원들의 육아 공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축하고자 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가족친화경영 추진을 통해 임직원 모두에게 '일과 삶의 균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일터'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육아시간사용 사무 외출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에게 육아 목적으로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부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선예 어린이

우리 아빠는 물을 잘 알아요. 물을 많이 만들어 봤대요. 엄마는 뭐든지 다 잘하는 똑똑한 박사예요. 우리 가족은 캠핑을 자주 가는데 엄마, 아빠가 고기도 맛있게 구워줘요. 캠핑에서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이서운 어린이

우리 가족은 같이 운동을 자주 해요. 아빠랑 엄마, 형아랑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같이 하면 다 함께 튼튼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도 엄마, 아빠가 안 힘들게 말도 잘 듣고 청소도 열심히 도울 거예요!



우리는 우정이 극에 달하면

이런 고백을 하곤 했다.
난 너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너랑 말하고 웃을 때 너무 시원해.

서한나, 『드라마』 중에서

Together



힘든
순간을

여
전
히

함께 살기
좋은 세상에서

글. 김세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나는 달린다』 저자



이겨내는

혼자여도 괜찮지 않나?

‘혼자’ 살기가 점점 더 편해지고 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5%를 넘어서면서 소형 주택, 1인 가구 맞춤형 가전, 가구, 식품과 생활용품 등이 다양하게 갖춰지고 있다. 혼자라서 고독하거나, 문제에 처해 난감할 때 친구나 가족, 전문가를 찾지 않아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의논하면 해결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인류는 함께 하기보다는 홀로이기를 자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른 이와 함께하고 싶는데 홀로일 수밖에 없어 외로운 것과 스스로 만든 고립에는 차이가 있다. 역시나 여러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한다. 나 혼자여도 ‘이럴까 저럴까’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기는데, 생각과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려면 갈

등은 증폭된다. 그나마 혼자면 주도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신경 쓸 게 적다. 자유롭고 편안하다. 무엇보다 홀로일 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전공의 시절, 100일 당직이 있었다. 수련과정 중 하나였는데, 전공의 1년 차 시작 후 100일 내내 집에 가지 못하고 온종일 병원에서 당직을 섰다. 홀로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자유롭고 편안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는 먹는 일이었다. 아침이면 의국에 커피를 내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취향에 맞춰 컵라면이나 빵 등 간식을 챙겨 놓았다. 점심에는 선생님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도 병원에 남아 있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했다. 2년 차 선생님과

는 식성이 달라 난감할 때가 자주 있었다.

“김 선생, 오늘 불닭이 당기지 않아요?” 당시에는 나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조율하는 수고가 내키지 않았고 그런 방법도 잘 몰랐다. 속으로만 궁시렁거렸다. ‘선생님, 저는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지 않고 저녁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괜히 선생님이 선호하지 않는 메뉴를 제시해서 눈치 없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눈 밖에 날 필요 없어. 그냥 맞추자.’

“예, 선생님. 불닭 갈까요?” 불닭을 먹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재빠르게 응답하곤 했다. 2년 차 선생님과 당직은 즐겁지 않고 불편했다.

것은

함께야 지속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으려면, 홀로 있을 때의 자유로움과 편안함,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포기해야 한다. 혼자인 게 편안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상황들을 늘 마주한다. 한편, 무리와 함께해서 얻는 것들도 꽤 많다.

혼자 달리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편리하지만, 굳이 시간과 장소를 맞춰 무리에 속해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함께하는 데서 분명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함께 ‘착착착’ 한 리듬에 따라 발맞추어 달리다 보면 흥이 나고, 더 오래, 더 빠르게 뛸 수 있다. 앞선 주자를 따라 달리다 보면 자세가 좋아지기도 한다. 함께 하는 데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다.

마라톤 대회에서 수천수만 명이 정황으로 는 ‘함께’ 달리고 있어도, 결국엔 나 홀로 달리는 것이다. 숨찬 느낌, 다리의 무거운 느낌, ‘이제 그만하고 멈출까?’ 쉬고 싶은 마음은 서로 대신해줄 수가 없다. 그럼에도,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것은 ‘함께’일 때 더 수월하다. ‘나만큼 저 사람도 힘들구나’, ‘옆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니 지금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참고 이겨내고 있구나, 나도 한 번만 더 이겨내 보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혼자 달릴 때보다 달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기록이 잘 나온다. 함께 하는 다른 주자들과 응원해주는 이들로부터 힘을 얻고 나를 알아주는 이들에게서 기쁨을 느끼며 좀 더 속도를 낸다.

‘함께’일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책임감도 더 강해진다.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그로 인해 힘든 일을 마주하고 이겨내기로 마음먹게 된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일의 성과가 좋은 이유도 그래서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혼자 달릴 때보다 달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기록이 잘 나온다. 함께하는 다른 주자들과 응원해주는 이들로부터 힘을 얻고 나를 알아주는 이들에게서 기쁨을 느끼며 좀 더 속도를 낸다.

42.195km를 달리는 동안, “파이팅”을 외치거나 엄지를 세워 보이며 상대 주자를 격려하고, 터널 구간에서는 다른 주자들과 같이 함성을 지르며 각오를 다지기도 한다. 주로에서 들려오는 “멋있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힘내라!”, 35km 사점 구간에서 전해주는 레몬 한 조각, 물 한잔이 고비를 이겨내고 피니시 라인에 이르게 한다.



함께라는 바탕 위의 동행

“선생님, 나만 무기력하고 우울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뭔가 다시 시작해볼 수도 있겠단 느낌이 들어요.” 진료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살다 보면 당연히 힘들 때가 있어. 나만 약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야.’라는 데서 안도감과 위로를 얻는다. 뇌졸중 등 뇌의 편측 병변 때문에 한쪽 손에 마비나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반대쪽 손을 쓰면 되는데, 반대편 뇌의 영역이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다른 쪽 손에 함께 마비가 오거나 기능이 현저히 저하

되기도 한다. 오른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왼손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한다는 전제의 바탕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전공의 시절 의국 생활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였기에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수련을 마칠 수 있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존재이면서, 서로 연결되어있다. ‘함께’라는 바탕 위에 나를 알아주는 또 다른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삶을 완성해간다.

더 수월하다

함께 해 더 빛나는

세기의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이다. 마음이 통한다는 건 그 자체로 서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위안을 주며 앞으로 나아갔던 세기의 소울메이트를 소개한다.

글. 조수빈



일상의 쓸모

세계를 종횡무진한 최고의 파트너

김환기와 김향안

김환기와 김향안은 부부이자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이자 함께 예술세계를 개척하기 위한 동반자였다. 김향안의 본래 이름은 변동림. 그러나 김환기와와의 결혼 후 그의 성과 아호를 이름 삼고 남편과 일심동체의 삶을 살았다.

김향안은 김환기를 전폭적으로 서포트했다. 어찌 보면 대장부 같은 면모였다. 김환기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문득 자신의 그림이 세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며 “파리에 가야겠어.”라고 선언했는데, 그 말을 들은 김향안은 다음날 곧장 프랑스 영사관에 가 비자를 받고 혼자 출국길에 올랐다. 이유인즉슨, 언어에 소질이 있던 본인이 남편의 작업실을 미리 마련해 두고 미술계 인맥을 쌓아두기 위해서였다고. 그리고 꼭 일 년 만에 김환기를 파리로 불렀다. 김환기가 세계 무대에서 종횡무진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김향안이 있었다.

이후 김환기가 세상을 떠난 뒤 김향안은 한동안 큰 상실감에 빠져 지냈다. 그러나 이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떠난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 환기재단을 설립, 1992년에는 환기미술관을 개관했다.

동지이자 라이벌 관계의

두 거장

고흐와 고갱

19세기 말, 인상파 이후 미술사조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에 예술을 끌어간 두 거장이 있으니,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예술적 재능에 감명받아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고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를(프랑스 남부의 도시)로 고갱을 초대했고 두 사람은 두 달 정도 함께 지내며 작품 활동을 했다. 이 시기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열정에 불을 지피며 예술성을 폭발시켜 나갔다. 고흐의 <해바라기>, 고갱의 <레 미제라블> 등 두 사람의 대표작이 탄생한 시기도 바로 이때다.

순조로워 보이던 이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실 두 사람은 성격부터 추구하는 작품의 방향까지 많은 부분에서 달랐다. 작품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자주 논쟁을 벌였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 결국 고갱이 고흐를 떠나며 한때 예술적 동지로 지내던 두 사람의 인연은 끝이 났다. 그렇지만, 이후 고갱의 그림을 살펴보면 해바라기를 그려 넣어 고흐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짧고도 강렬했던 관계가 각자의 인생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것이다.



트렌드를 선도한

환상의 짝꿍

오드리 햅번과 위베르 드 지방시

영화 <로마의 휴일>로 얼굴을 알린 오드리 햅번은 데뷔 초만 해도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는 낯선 캐릭터였다.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우상화되던 시기에 청순하고 가녀린 이미지의 햅번은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차기작 <사브리나>의 의상을 구하기 위해 파리로 향했을 때도 여러 디자이너들에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패션 브랜드 ‘지방시’의 설립자인 위베르 드 지방시도 처음엔 햅번에게 자신이 만든 옷을 주길 거절했다. 그러나 햅번의 끈질긴 부탁 끝에 한 가지 의상을 내어주었는데, 꼭 처음부터 그를 위해 만들어진 옷처럼 잘 맞았다고. 그렇게 햅번은 <사브리나>를 통해 몸에 딱 붙는 카프리 팬츠와 보트넥 셔츠, 하이웨이스트 반바지 등 지방시가 디자인한 옷을 선보였고, 많은 여성들을 열광하게 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했다. 오드리 햅번은 지방시에 대해 “그가 만든 옷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옷이다.”라며 “그의 옷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약 8편의 영화에서 배우와 디자이너로 함께 했으며, 오드리 햅번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한 각종 레드카펫 행사에서 늘 지방시 드레스를 입었다. 이밖에도 플랫폼슈즈, 실크 스카프, 트렌치코트, 검정 터틀넥 등 두 사람이 함께 유행시킨 패션 아이템은 셀 수 없이 많다.



진해군항제를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봄은 짧다. 화사한 색으로 산과 들을 뒤덮었다가도 눈 깜짝할 사이에 흔적을
감추고 여름을 부르기 때문! 이 짧고도 강렬한 봄꽃을 만끽하기 위해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여섯 사람이 진해군항제로 떠났다.
벚꽃 성지 진해군항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몇 가지 꿀팁도 함께 담았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최철용 부장, 정혜민 차장, 반수현 과장
김태환 대리, 윤유라 사원, 허소진 사원

벚꽃 성지 진해로 가자

기차길 따라 흐드러진 벚꽃 터널, 바람 한 점에 하늘하늘 쏟아지는 꽃
비, 자전거를 타고 가르는 꽃향기. 이 황홀한 경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봄 축제 중 가장 유명한 '진해군항제'다. 꽃망
울이 하나둘 얼굴을 꺼내는 계절이 오면 전국의 상춘객들이 진해를 부
러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벚꽃 성지'라 불리는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서다.

이 설렘을 만끽하기 위해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들이 진해로
출발했다. 정혜민 차장은 이곳에서의 강렬한 기억을 잊지 못해 겨우내
봄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단다. "아내와 데이트 할 때 처음 진해
군항제를 방문했었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여좌천 로망스다리, 경화역
공원뿐만 아니라 눈 돌리는 곳마다 꽃이 보여서 행복했죠. 이런 소중한
경험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차로 삼십 분만 달리면 진해에 도착한
다. 동료들을 이끌고 진해군항제에 도착한 정혜민 차장. 올해 축제는
여좌천 로망스다리와 경화역 공원 두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도 경화역 공원으로 이끌었다. "경화역 공원은 여좌천보다 공간이 넓은
데다 긴 철길을 걸으면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고 기차 전시관 같은 포
토존도 많아서 좋더라고요. 늘 가족이랑만 왔었는데, 동료들과 오니 색
다른 기분인데요?"라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경화역 공원에서 즐기는 봄 피크닉

공원 입구에서부터 "와, 정말 꽃 반, 사람 반이네요"라며 감탄하는 최철
용 부장에게 반수현 과장은 "그래도 평일이라 덜 붐비는 거예요. 주말
에 오면 사진 찍기도 힘든데,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아요!"라며 카메라를
들었다. 벚꽃 사진부터 셀카까지 인생샷 건지기에 여념이 없던 이들을
김태환 대리가 "저희 여기 앉는 거 어때요?"라며 불러 세우고는 철길을
조금 벗어난 곳에 돛자리를 깔아 빵과 김밥, 닭강정 등을 착착 세팅하
며 멋진 한 상을 차렸다.

눈 깜짝할 새 사라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뭔가 아쉽다는 반수현 과장의
말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해요!"라며 윤유라 사원이 맛
장구를 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허소진 사원이 "그럼 진해루 해변공원으
로 가는 게 어때요? 거기 오션뷰 카페가 있거든요!"라며 제안했다.
'쿵' 하면 ' 짹' 하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들의 환상적인 팀워크를 알 수
있었다. "사업단에서 근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많은 것을 결
정하고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심히 해 주어 고
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일하다 힘들 때 술 한 잔 정도는 사줄 수 있으
니 언제든지 이야기하길 바라요!" 좋은 풍경을 앞에 두고도 동료들을
생각하는 이들은 봄벌처럼 서로를 비취주고 있었다.

사적인 가이드 따라 즐기는 진해

01

꽃 구경도 식후경 대섬횃집

꽃 구경을 위해 진해에 왔다면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도다리썩국'. 도다리는 창원 앞바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어종 중 하나다. 이맘때 진해의 많은 횃집에서 제철 메뉴로 '도다리썩국'을 팔고 있는데, 쫄깃한 식감이 아주 예술!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229

🕒 11:00~21:30(매주 월요일 휴무)

#4월부터 도다리가 제철
#행암바다 데크로드 앞
#주차장 완비



02

봄나들이 필수품, 간식 챙기기 카페 감빠뉴

소풍에 간식이 빠질 수 없다. 진해에 많은 카페 중 허소진 사원의 추천 카페는 바로 빵이 맛있기로 유명한 '카페 감빠뉴'. 가장 유명한 빵은 마늘바게트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657번길 16-1

🕒 매일 08:00~22:00

#제과기능장의 집
#추천메뉴1 마늘바게트
#추천메뉴2 감빠뉴



03

진해군항제 공략법을 소개합니다 경화역 공원

진해군항제에서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면 평일 오전에 방문하자. 메인 포토존은 공원 입구의 기차 모형 전시관인데 정면에서 찍으려면 줄을 오래 서야 하는데 측면에서 찍어도 근사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옛 역사 대합실, 분홍색 곰돌이 조형물 등도 놓치지 말 것!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49



진해군항제 무료 셔틀버스

레드라인

명동분교 - 진해구청 - 경화역 - 중앙시장 - 해군교육사령부

블루라인

공단로 - 안민터널 - 경화역 - 중앙시장 - 진해역 - 북원로터리

#사진맛집
#기차 사진은 측면에서
#대합실 #빨리곰조형물

04

자전거 타고 누비는 진해 한 바퀴 공영 자전거 '누비자'

진해군항제로 도시 전체가 붐빌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창원의 공영 자전거 '누비자'는 앱을 깔면 실시간 자전거 위치와 대여 가능 댓수를 확인할 수 있고 간편하게 대여도 할 수 있다.

1일 이용권 1천 원

추천 코스 진해루 → 소죽도 → 풍호공원 → 진해역 → 해관사관학교 입구 → 제창산 공원

#대여부터 반납까지 '누비자' 앱 하나로!



06

바다 품은 핫플에서 커피 한 잔! 카페 플랜비

진해루 해변공원에서 놀다 목이 마르면 카페 플랜비로 가 보자. 내부의 커다란 통창으로 뽕 뚫린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하늘이 화창한 날엔 야외 테라스에서 살랑살랑 바람을 맞는 것도 좋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46, 2층

🕒 매일 10:00~22:30

#애견동반카페
#봄에는 벚꽃에이드
#테라스 있는 카페



05

해변공원에서 신나는 시간 진해루 해변공원

푸른 산과 바다를 앞에 둔 웅장한 진해루. 약 27km가량의 해안선 따라 산책길과 자전거길이 쭉 나 있는데, 경사가 없어 부담 없이 걷고 달리기 좋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자, 전망데크가 있고 종종 버스킹 공연도 열려 눈과 귀가 즐겁다.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42

#버스킹맛집 #해안데크길
#누비자 자전거터미널





수자원관리처 윤귀한

중학교 시절 함께 방송반 활동을 했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저는 카메라 감독, 성우 역할을 맡았었고, 여자친구들은 아나운서와 신입 교육을 맡았었죠. 항상 당차고 자신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정말 환상이죠?

부산권지사 김진수

듬직한 차장님과 저 그리고 갓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저희 3명은 올해 시스템관리과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ㅎㅎ). 아직 함께한 기간은 짧지만 사진에서 벌써 화목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2025년을 환상적으로 만들어 나갈 우리가 기대됩니다!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 사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참 소중했던 시절, 맛있는 음식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시절...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든 순간 나를 더 빛나게 해 줄 무언가와 함께하고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생각하는 환상의 조합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했다.

정리. 편집실 사진. 각 인터뷰이 제공

홍보실 김도연

신입사원 연수 때 1등 했던 우리 13조. 2025년도 신입사원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조'라고 자부합니다. 늦게까지 보고서 작성하랴, 영상 편집하랴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불평 없이 모두 열심히 했었죠. 강원도 태백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으로 흩어진 13조! 모두 보고싶어요~



기술기획처 이시연

작년 여름 혼자 떠난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운명처럼 만나게 된 동행자들. 나이드, 직업도, 사는 곳도 모두 다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래된 친구처럼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꿈처럼 특별했던 그 순간. 지금 생각해도 참 잘 어울렸어요.

물산업혁신처 방재인

'출출한데 간단하게 뭐 먹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합. 바로 라면과 김밥입니다. 호로록 라면 한 입, 김밥 한 알을 라면 국물에 푹 찍어서 한입. 든든하고 기분 좋아지는 조합입니다.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처) 서준혁

광주의 명물 패밀리랜드에 뜬 영섬유역의 작은 전사들! 함께 날 맞춰 떠난 덕분에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영섬을 지키는 우리 동료들 모두 꼭씩 속았수대!



디지털관리처 배병철

청명한 하늘, 푸르른 대청댐, 그리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우리 가족 3대. 이걸 '최강 조합'이라는 말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뜻
밖의

풍경

태안

한반도처럼 반도 지형인 태안은
한반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으로
가득했다. 이곳에서의 잔상이 쉽게
희미해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글. 박재현 소설가 사진. 황지현





코리아플라워파크

공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트랙터 열차를 타고 한 바퀴 돌길 권한다. 36개월 미만은 무료, 만 19세 이하는 2천 원, 성인은 3천 원이다. 한 바퀴를 도는데는 13분 정도 소요된다.

꽃처럼 환하게

세상에. 튤립이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색색의 튤립에 눈이 바빠진다. 꽃을 즐긴다는 건 어쩌면 색을 즐긴다는 거 아닐까. 넘실대는 색의 바다에 빠져 금세 미소가 나오고 만다. 이곳은 이름처럼 꽃이 주인공이다. 계절마다 튤립과 여름꽃, 가을꽃으로 공원이 가득 찬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짧게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아쉬움을 여기서 달래 보자. 내 안의 허기를 꽃으로 채우는 건 아무래도 근사한 일이다. 아무리 채워도 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섭취가 나를 한 뼘 정도 더 다정하게 만들리라 믿는다. 대체로 비슷하게 환해진 얼굴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백화산 구름다리

산 속에서 만난 붉은 구름

태안을 대표하는 백화산은 그리 높지 않아 많은 등산객이 편하게 찾는다. 산을 보다 여유롭게 즐기며 오를 수 있다. 오로지 등산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되니, 후각과 청각으로도 산이 들어온다. 길에는 유독 기암괴석이 많아 그걸 보는 것도 큰 재미다. 곁에는 소나무가 있는데 오래된 친구처럼 잘 어울린다. 구름다리는 정상 아래에 있다. 이름도 귀여운 두 봉우리 봉봉대를 잇는 붉은 다리는 존재감이 뚜렷하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전망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활하다. 태안 시내와 저 멀리 보이는 서해바다에 마음이 놓인다. 구름 위에 있듯, 눈을 감고 공중을 즐겨 보는 건 어떨까.



동문리 쪽에서 오르면 만나게 되는 태을암에는 백제의 보물이라 불리는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

시간이 만든 작품

한국에서도 사막을 볼 수 있다는 걸 아는가. 정확히는 사막이 아니라 사구(모래 언덕)인데, 이곳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드넓게 펼쳐진 모래를 보고 있으면 중동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낙타가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풍경이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강한 바람에 모래가 해안가로 운반되면서 만들어졌다. 우리의 생이 그러하듯, 조금씩 쌓인 과거가 현재가 된 것이다. 자세히 보면 모래의 결이 보인다. 바람이 만든 무늬다. 물결처럼 혹은 꿈결처럼 부드럽다. 이곳에선 오아시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바로 앞에 드넓은 서해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육지와 해양 생태계의 완충 지역으로
맹꽁이, 금개구리, 구렁이 등의 멸종 위기
동식물도 서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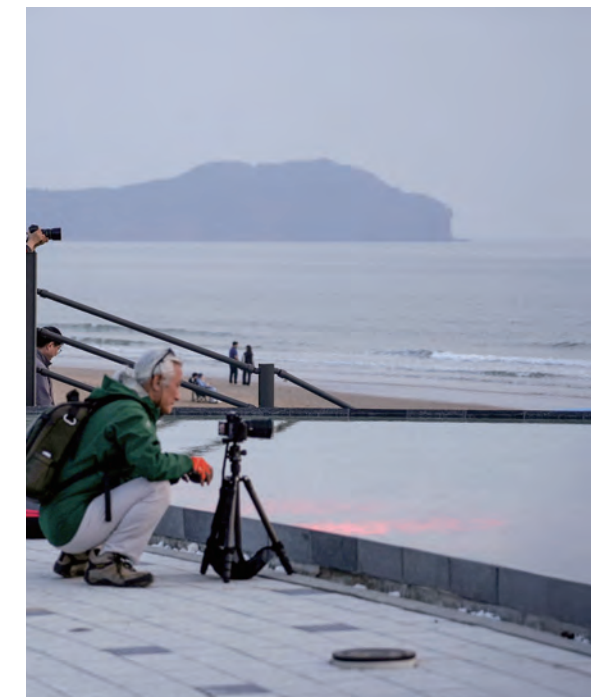


코리아플라워파크와 붙어 있어 함께
구경하기 좋다. 근처에서 태안 특산물인
게국지 먹는 코스를 추천한다.

꽃지해수욕장

좋은 말이 나오는 풍경

이곳은 이름부터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백사장을 따라 해당화가 여기저기 피어 생긴 이름이라고 거닐기 좋은 해수욕장인데 그건 바다에 있는 두 바위의 뒀이 크다. 할매 바위, 할배 바위는 프레임에 어떻게 담아도 멋스럽다. 바다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굳건함 때문일까. 물이 빠지면 바위까지 걸어가 볼 수도 있다. 멀리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얼굴이다. 이들은 해가 질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둘 사이로 해가 떨어지는 풍경은 일부러 기다려도 될 정도로 깊이가 있다. 마음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주황빛 노을의 농도로 펼쳐진다.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분명 좋은 말을 건넠 것이다.



태안이 그린 동화 속으로

글. 조수빈 사진. 박갑순 그림. 위든(witheun)

태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 마치 동화책같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자연, 역사, 그리고 미래의 기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장면들을 마주한다. 다음 장이 궁금해지는 태안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도착한 곳들을 소개한다.



천리포수목원

자연의 품에 안기다

사계절 푸른빛을 머금은 곰솔 사이로 탁 트인 서해가 보이는 천리포수목원은 식물들 사이를 거닐며 청량한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덕에 여느 식물원보다 진한 감동이 느껴진다.

수목원에 들어서는 순간, 꽃과 나무들이 내뿜는 향기와 푸르름이 우리를 맞이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인 설립자 민병갈 씨는 40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태안의 산림을 가꿨다. 그는 삶의 마지막 날까지 수목원 생각을 멈추지 않았는데, 허허벌판이던 산림은 어느새 국내 최다 식물종 보유 수목원으로 그의 자량이 되었다. 자연을 사랑하는 설립자의 자연에 대한 진심 덕분일까? 천리포수목원의 꽃과 나무는 유독 생기가 넘친다.

65,623㎡나 되는 밀려가든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도록 곳곳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 노을쉼터에서 살아 있는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 해 질 녘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다. 또 9개로 나뉘는 산책로는, 구간마다 볼거리가 달라 구경하는 맛이 있다. 새로운 식물을 보며 호기심을 충족하는 아이들과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여유를 즐기는 어른들. 모두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만큼 깊게 빠져들 만한 산책 코스다.

천리포수목원에서는 '가든 스테이'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숙소의 개념을 넘어 자연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다. 식물과 자연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을 산책하며 관찰하고,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계절 중 식물이 가장 아름다울 지금 이 봄, 태안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임이 틀림없다.

📍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87

🕒 운영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 문의 041-672-9982





눈 앞에 펼쳐지는 공룡 세상

아이들에게 꿈의 장소이자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동심을 일깨워 줄 마법 같은 공간,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대가 압도한다. 상상 속에서만 보았던 공룡이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이 화석들은 박물관의 전시를 구경하는 내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그 시절을 생생히 느끼게 만든다. 층별로 다른 시기의 공룡과 자연사 전시를 볼 수 있는데 1층은 중생대 공룡, 지질연대표 등, 2층에서는 중생대 해양 파충류, 신생대 포유류 등, 3층에는 현생 동물과 기획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아이들은 공룡 화석 발굴 체험을 통해 고생물학자가 되거나 VR 체험을 통해 공룡의 세계를 직접 탐험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박물관 내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 공간뿐 아니라 어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모두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가족 여행 명소로 추천받는 이유 중 하나다. 박물관과 인접한 주라기 공원에서는 다양한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어른들의 추억을 되새기는 만화 <로봇 태권V>와 화려한 변신 장면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 영화 <트랜스포머> 범블비 등의 조형물이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거대한 공룡 포토존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은 화석처럼 영원한 추억이 되고, 이곳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의 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

📍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37-20
 🕒 **운영** 09:30~17:30(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41-674-5660



태안UV랜드

📍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기업도시로 1133
 🕒 **운영** 평일 09:00~18:00
 주말 09:00~17:00(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41-675-8341

하늘에는 꿈이 있다

'K-드론'의 랜드마크 태안UV(Unmanned Vehicle)랜드에서는 하늘을 마음껏 올라다볼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시설인 이곳은 첨단 항공 기술의 집약체로, 드론과 같은 항공 모빌리티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공간이다. 항공 분야로는 정평이 난 한서대학교 첨단항공모빌리티센터가 운영하기에 더 신뢰감이 높아진다. 무인조종멀티센터, 체험 및 교육시설, 비행 시설 등을 고루 갖춰 드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하다. 우선 이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화려한 시설들인데, 이곳을 방문한 아이들은 물론, 어릴 적 RC카를 좋아하던 성인들은 넓은 활주로를 향한 비행을 상상하며 두근대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바쁘다. 드론 비행에 최적화된 공간에서 직접 드론을 운전해 보지 않는다면 손해일 터. 처음 드론을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 초심자가 방문해도 문제없다. 드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직접 드론 운전 연습까지 할 수 있어 여러 곳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태안UV랜드는 차로 10분 거리인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과 협력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주일 이내의 태안UV랜드 방문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게는 박물관 입장료를 10% 할인해 준다. 과학을 테마로 한 가족 여행으로 두 곳을 방문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멋진 테마 여행을 완성할 수 있으니 여행을 계획할 때 잊지 말고 참고하자.



© 태안군청





자연과 나만의 오롯한 시간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바람의 리듬 따라 춤추는 물결, 물이 빠져 나간
자리에 얼굴을 내민 뱀, 일몰 무렵 불그스름하게
번지는 하늘. 이 낙원 같은 곳에서 오로지 몸과
마음으로 자연과 대화하는 최효진 씨를 만났다.

요가 안내자 최효진

에너지를 잘 쓰는 방법

‘요가’라 하면 아사나(요가에서 ‘자세’를 뜻하는 말)
에 접근하는 부드러운 움직임, 고요한 에너지와 평
화로운 명상 등이 떠오른다. 이런 이유에서 효진 씨
의 전공은 조금 의외다. 그는 고등학교 입시 때 뮤
지컬을 전공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복수전공으로
사회체육을 택했다.

뮤지컬과 사회체육, 요가의 공통점이라면 ‘에너지’
를 쓰는 일이라는 거다. 그런데 전자의 두 가지가 역
동적인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이라면,
요가는 내면의 고요를 지켜 에너지를 축적하는 일
이다. “저에게는 힘을 밖으로 뽐내내기보다는 단단
하게 쌓는 일이 더 잘 맞더라고요. 물론 요가 수업
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소진하기도 하지
만, 혼자 하는 수련을 통해 분출한 만큼의 힘을 다
시 채울 수 있어서 좋아요.” 마침 관객을 상대로 공
연을 이끌었던 뮤지컬 전공자로서의 경험이 수련생
들 앞에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데에 좋은 자양분이
되기도 했다.



사실 여기까지는 서울에서의 이야기다. 효진 씨가
태안에 내려온 지는 올해로 3년 차다. 서울에서 나
고 자라 줄곧 서울에서만 자라던 효진 씨가 태안에
내려온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모두
여기, 태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놀고 싶을 때마다
태안에 왔어요. 만리포로 서핑을 다녔고, 캠핑을 즐
아하는데 풍경이 멋진 곳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
었어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노는 게 좋은데, 서울에
서는 도무지 그 갈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을 가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태안행을 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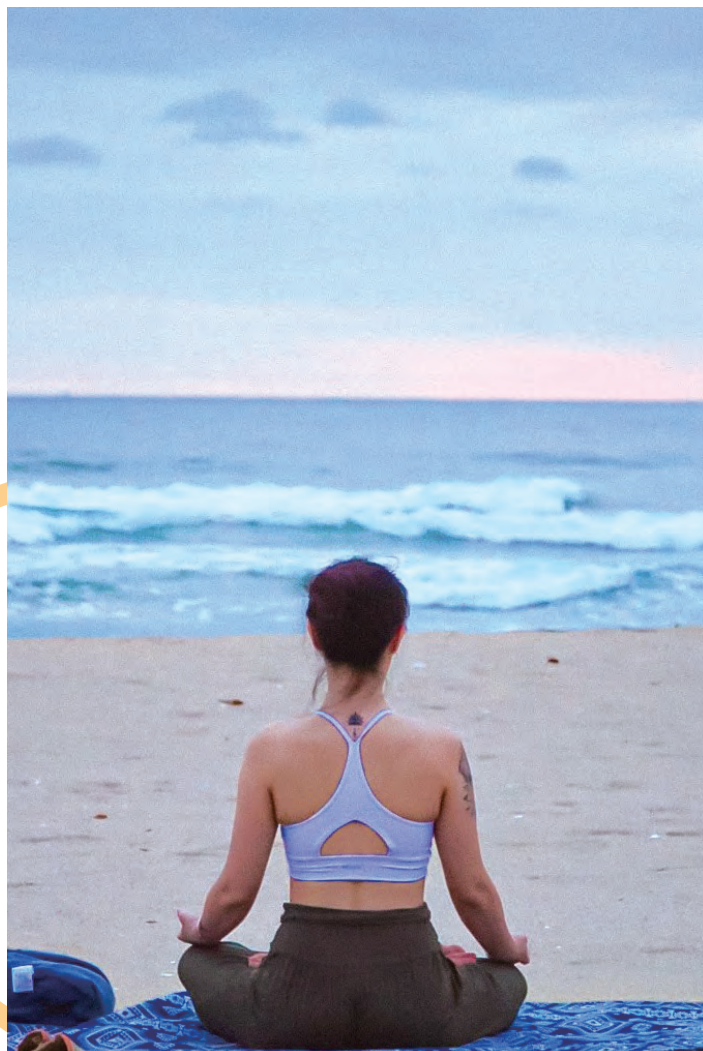
도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태안의 풍경

태안에 터를 잡기 위해 여러 곳을 둘러 봤다. 조건
두 가지였다. 자연과 가까우면서도 사람들의 삶의
반경과 그리 멀지 않은 곳. 그가 현재 태안군 도내리
에서 운영하고 있는 낙원요가는 바로 앞에 바다를
마당처럼 두고 있는 데다, 차로 이십 분이면 태안과
서산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효진 씨가 바라던 조건에
딱 맞는 공간을 만난 덕분에 태안행을 결정하고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
게 됐다.

와 보니 정말 서울과 태안의 생활은 천지 차이였다. “우선 매트 간격이 다르죠. 수련을 하며 팔을 양옆으로 퍼거나 다리를 옆으로 쪽 뻗어도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바랐는데, 사실 도심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역시 가장 큰 차이는 늘 자연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일 물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고, 시기마다 밀물과 썰물의 양이 다르고, 해가 뜨고 지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몰랐어요. 태안에 사는 덕분에 자연의 법칙을 알게 됐죠.”**

어떤 날은 요가를 하는 도중에 바다 위에 뜬 무지개를 만나기도 했는데, 일곱 빛깔이 조금씩 짙어지고 점차 열어지는 무지개의 변화를 한참이나 넋을 놓고 바라보았단다. 서울이었다면 바빠 걷느라 차마 보지 못했을 풍경이라는 생각에 ‘역시 태안에 오길 잘했다’ 싶었다고.

태안에 오고 난 후 야외 수련도 자주 하고 있다. 하늘이 조금이라도 화창하면 낙원요가 옥상에서 수련을 하고, 매주 일요일은 의항해변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요가 수업을 진행한다. 매달 1회는 ‘월간 요가’라는 이름으로 태안의 곳곳에서 매트를 깔고 몸과 마음을 펼치고 있다. 4월에는 신두리 해변에서 요가를 했다. “모래사장 위에서 요가를 하는 건 또 다른 맛이예요. 피부에 닿는 모래의 고운 입자, 햇볕에 뜨끈하게 달아오른 모래의 열기도 좋아요.”



요가하듯 산다는 것

효진 씨가 이토록 자연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요가란 자연과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요가를 하다 보면 몸과 마음과 자연, 그리고 너와 나의 에너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연, 나와 에너지를 나누는 도반(요가를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뻗어가는 나의 몸, 이 모든 것들을 일종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요가는 결국 사랑으로 향하는 수련인거죠.”

요가를 하면서 삶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 무한한 연결을 느끼다 보면 요가가 내 삶으로 넘어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특히 아사나에 접근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들이 세상사는 방식과 참 닮았다고 말했다. **“사실 엄청나게 심각했던 문제도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게 많잖아요. 그런데 과하게 걱정하고 전전긍긍했던 거죠. 어차피 별 게 아니라면 좀 내려놓는 것도 좋잖아요. 되지 않는 문제에 애를 쓴다는 건 나만 힘든 일이니까요. ‘오늘은 힘 좀 풀어볼까?’라는 태도가 중요해요.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탈만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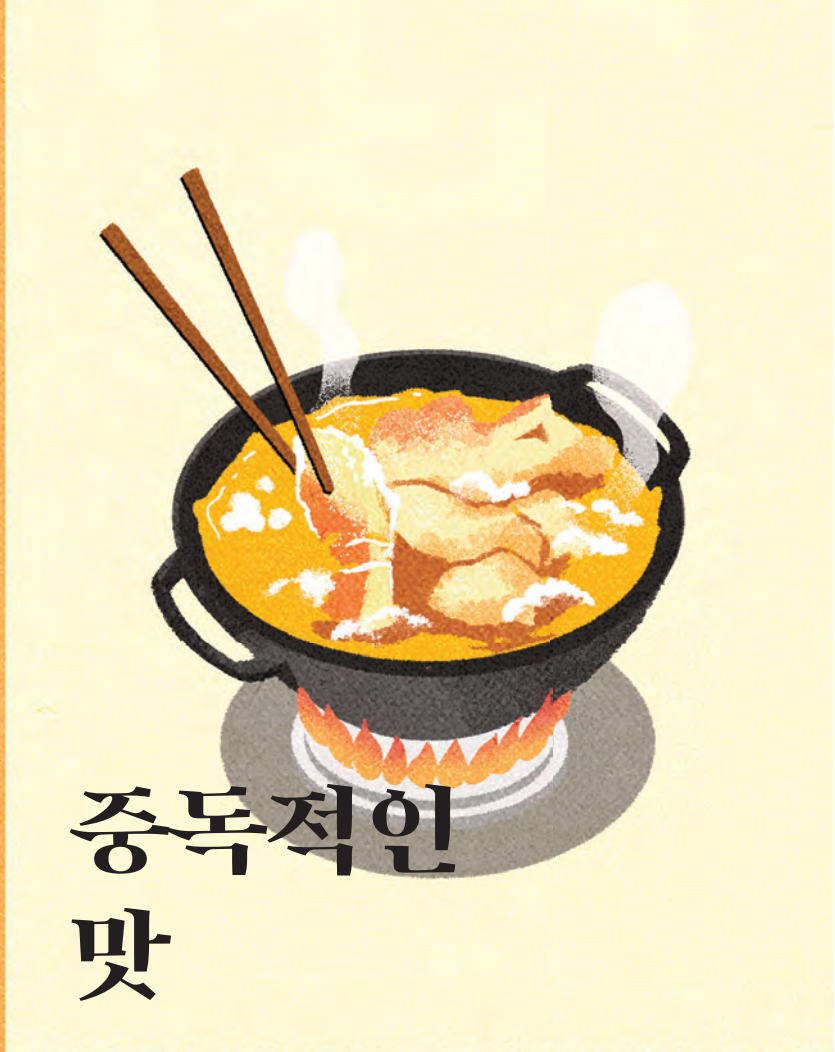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 힘을 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옆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쫓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진 씨의 요가원에는 거울이 하나도 없다. 힘을 풀기 위해서는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야 하는데, 시선을 타인에게 빼앗기면 마음의 균형이 깨질뿐더러, 타인과 비교하다 보면 힘을 풀기는커녕 무리하게 된다고.

그는 앞으로도 요가가 알려 준 가르침에 따라 살아볼 작정이다. 흐르는 듯 그러나 견고하게. 어쩐지 단정하다고만 생각했던 그의 미소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자연과 매일 교감하며 사는 사람의 미소란 그런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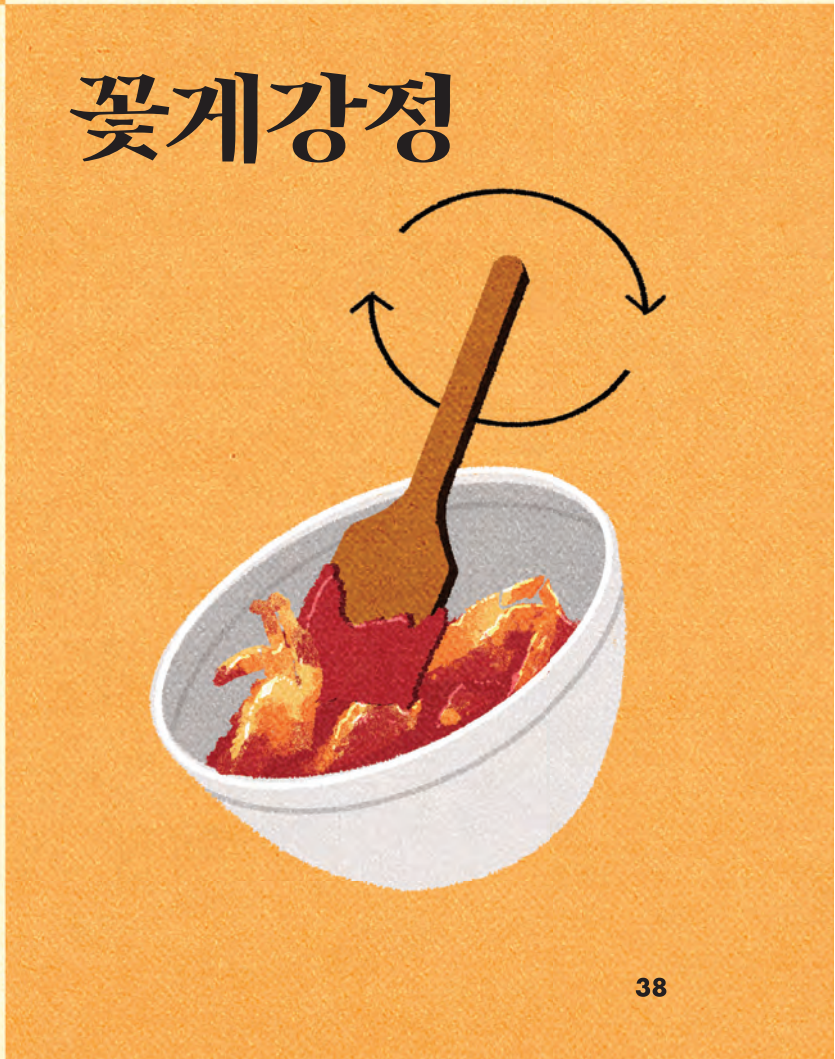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태안 한 상



38

간장에 폭 졸인 간장게장, 매콤한 양념으로
버무린 양념게장, 배추를 넣어 폭 끓여낸
게국지 등. 꽃게는 어떻게 요리해도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게 만든다.
여기에 새로운 밥도둑이 될 요리를 소개한다.
새콤달콤한 꽃게강정이다.

글. 편집실 그림. 결(Gyeol)



태안은 전국에서도 이름난 '꽃게'의 도시이다. 랜드마크로는 꽃게 다리
가 있고, 해안가에는 꽃게 요리 전문점이 줄을 선다. 백사장 여촌계수
산시장에도 입구에 딱하니 붙은 꽃게 조형물이 이곳이 '꽃게'의 도시임
을 말해주고 있다.

봄은 꽃게가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로 알과 살이 가득 차고 달달한 맛이
절정으로 오르는 시기다. 태안의 꽃게 요리로는 '게국지'가 가장 유명하
다. 그러나 이 역사 깊은 요리 말고도 태안의 꽃게를 즐길 방법은 많다.
특히 갯 지은 흰 쌀밥에 올려 먹으면 밥도둑으로, 맥주와 곁들이면 최
고의 안주로 불리는 요리가 있다. 바로 꽃게강정이다.

꽃게강정은 껍질째 한입에 즐기는 요리인 만큼 꽃게 손질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꽃게 껍질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으니 작은
솔로 박박 문질러 닦은 뒤, 먹기 좋게 절반 사이즈로 자르면 된다. 만약,
어린이가 먹을 경우 1/4 사이즈로 자른 뒤 다리 끝부분의 날카로운 껍
데기에 입안이 다치지 않도록 손가락 한 마디만큼 잘라 주면 좋다. 그
리고 감자전분을 묻혀 바삭하게 튀긴 다음 양념에 버무리기만 하면 요
리는 끝난다. 간단한 요리법에 비해 맛은 풍요롭다. 껍질의 바삭바삭
함, 양념소스의 새콤달콤함, 꽃게살의 탱글한 식감과 달달한 맛이 입안
가득 휘몰아친다.

재료
꽃게 400g, 후추, 소금 약간, 감자전분 1/2컵, 식용유, 피망, 양파,
아몬드 슬라이스

소스
고추장 2T, 진간장 1t, 설탕 2T, 식초 1T, 올리고당 1T, 케첩 1T,
후추 약간, 고추 1개

레시피
1. 꽃게 몸통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 절반 크기로 자른다.
2. 손질한 꽃게에 후추, 소금으로 밑간을 한다.
3. 꽃게에 감자전분을 골고루 묻힌 다음 예열한 기름에 튀긴다.
4. 소스 재료를 골고루 섞어 한소끔 끓인다.
5. 소스가 식으면 튀긴 꽃게와 깍둑 썰기 한 피망, 양파를 넣어 버무린다.
6. 꽃게강정 위에 슬라이스한 아몬드를 뿌려주면 완성!

39



오늘도

우리는
맑음

연천포천권지사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노재준

연천포천권지사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와글와글’했다. 쾌청한 하늘 위로 동료들 향한 애정이 몽글몽글, 지역을 향한 사랑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던 연천포천권지사의 수타벅스 현장을 소개한다.

지역과 지사를 잇다

댐은 목적에 따라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 다목적댐 등으로 나뉜다. 그중 연천포천권지사에서 관리하는 한탄강댐과 군남댐은 홍수기에 저수량을 조절하여 폭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는 ‘홍수조절댐’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의 특수성은 ‘접경지역’이라는 데 있다.

군남댐은 유역의 97% 이상이 북한에 위치하고 있어 수위예측이 어렵다. 이에 임진강의 최북단 필승교 수위를 기준으로 위기상황을 판단하여 비상 방재근무를 서고 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로 인해 지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부심이 생겨요. 직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라는 이성수 부장의 말처럼 직원들의 표정에서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들은 지역 안전만큼이나 지역과의 상생에도 진심이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댐과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지역 관광지와 더불어 맛집, 축제 등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개설한 자체 유튜브 채널 ‘K-와파’는 개설 1년 만에 구독자 4천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를 통해 환경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모 우수상, 한국수자원공사 댐지원사업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기

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마스코트인 방울이에 지사의 색깔을 담아 ‘연포 방울이’라는 자체 캐릭터도 제작했다. 연포 방울이를 제작한 주인공인 홍솔 대리는 “‘연천포천권지사’를 줄여서 ‘연포지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낙지 모자를 쓰고 있는 방울이를 그렸어요. 사실 저는 그림만 그렸을 뿐, 아이디어는 모두 동료들이 주었어요. 저희가 함께 만든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라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연천포천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역대급 즐거운 수타벅스 현장

“올해 홍수기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동료들의 사기를 충전해 주고 싶어요!” 이진형 과장의 요청에 수타벅스가 연천포천권지사로 떠났던 어느 날. 지사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직원들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 왔다. 점심시간이었던 만큼 웃음이 퍼지는 곳이 구내식당인 줄 알았건만,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탁구대 앞이었다. 동료들의 대결을 지켜보던 임민호 대리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탁구 붐이 한창이에요. 저도 연천포천권 지사에 와서 처음 탁구를 배웠는데, 지준영 차장님 덕분에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끝나고, 옹기종기 모여있던 직원들은 탁구에 열을 올리느라 소화가 다 된 것 같이라며 얼른 텀블러를 챙겨서 수타벅스로 향했다. 이들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기 위해 수타벅스가 시원한 음료와 달콤한 파배기를 준비했다. “대리님! 뭐 마실 거예요?” 줄을 서는 동안 고개를 꼭 빼고는 메뉴판을 바라보며 무슨 음료를 마실까 고민하던 김빈나 대리는 “바닐라 라떼 드세요! 맛있어요!”라며 홍솔 대리가 메뉴를 추천하자 단박에 “같은 거로 주세요!” 하며 텀블러를 내밀었다. 음료와 간식을 받아든 이들은 서로 사진을 남겨 주겠다고 하며 동료들을 카메라 앞에 세우기도 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소문난 맛집에서나 볼 법한 진풍경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에너지를 완벽하게 충전했던 하루! 올 홍수기에도 바쁜 나날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동료들과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힘을 얻길 바란다.



● interview ●

올해도 수도권은 우리가 지킨다!

한탄강댐관리부 이진형 과장

연천포천권지사는 물재해로부터 수도권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홍수기에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이 오기 전 다들 단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아 뿌듯하네요. 올해도 우리 지사 화이팅입니다!





물관리 우주 시대 개막 카운트 세계 첫 수자원위성개발

환경부가 주도하는 세계 최초 수자원 및 수재해 관측 전용 인공위성이
2027년 발사될 예정이다. 물 안보를 지키는 핵심자원으로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자원위성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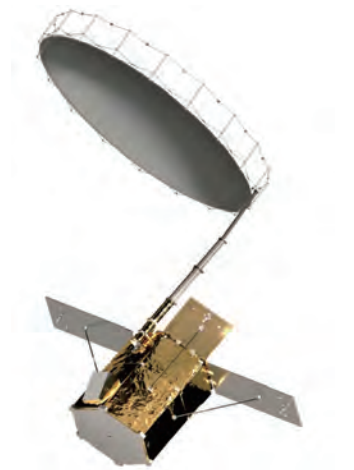
글. 편집실 자료. K-water연구원 수자원위성센터

심화하는 기후 재직 현상에 대응할 실시간 수자원 감시체계

세계가 극심한 가뭄과 폭우에 동시에 시달리는 기후재직질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대표적인 예다. 겨울에 늘어난 강수량에 초목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어진 건조한 날씨는 이를 연료 삼아 불씨를 더 크게 키웠다. 이와 같은 기후재직질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은 공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를 흡수해 홍수와 가뭄을 악화시킨다. 건조한 시기에는 더 빠르게 수분을 증발시켜 지표면을 메마르게 하고, 습한 시기에는 폭우를 쏟아붓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가속으로 세계 곳곳에서 물 재해가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상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과 이를 활용한 물 재해 감시 지상 운용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나사(NASA) 등이 운영 중인 기후감시 위성은 있지만, 수자원에 특화된 전용 위성은 아직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핀란드 등



해외 위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무료 공개된 위성 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위성마다 해상도와 관측 주기가 달라 분석에 제약이 있었다. 국내 위성도 주로 가시광선에 기반해 영상을 획득함에 따라 악천후나 야간 관측이 제한적이고, 지류 하천 정밀 감시와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 세계 최초의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비구름도 꿰뚫어 보는 영상레이더 위성으로 홍수 예·경보의 골든타임 확보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 프로젝트는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연구과제(R&D)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성 본체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탑재체(레이더) 개발을 맡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성 정보를 활용한 물 재해 감시 지상 운용체계와 활용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1단계는 국가 R&D 프로젝트로 중형급 수자원 전용 위성을 개발하고, 2단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개발하는 초소형 군집위성을 연계 운영해 한층 더 정밀한 수자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위성(차세대 중형위성 5호)은 하루 두 번 한반도를 촬영한다. 특히 핵심부품인 영상레이더(SAR)는 태양광이 필요한 전자광학 센서와는 달리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구름·비·어둠을 뚫고도 관측이 가능하다. 입체감 구현에도 강점이 있어 홍수·가뭄 등의 지형변화와 수질 이상 감지에 적합하다.

2단계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개발하는 초소형 위성(K-water SAT)은 총 4기가 군집체를 형성해 이틀간 3회 한반도를 관측한다. 수자원 전용 위성과 연계해 관측 빈도를 높이고, 좁은 지역을 고해상도로 감시한다. 표면 구조나 형태 감지가 뛰어나 댐과 수도 등 중요 국유재산 감시, 녹조 상태, 접경지역 시설물 관측, 식생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각 위성의 외관과 세부사항

수자원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5호)

탑재체유형 C-band SAR(영상레이더)

관측폭 120km 이상

해상도 10m×10m 이하

무게 500kg 급

운영고도 561km

재방문주기 2회/일(한반도 전역관측)

초소형 군집위성
(K-water SAT)

관측방법 광학

관측폭 12km

해상도 1.0m

무게 30kg 이하

운영고도 561km

재방문주기 3회/2일(주간 관측)

우리나라는 접경지역의 예고 없는 댐 방류로 해마다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존에는 북한 댐 방류에 대해 하천 수위를 활용해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무단방류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한 분석·상황 전파로 홍수 예·경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발사될 수자원위성의 예정 궤도를 설명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위성센터 황의호 센터장

동일지점
비슷한 시간대의
광학위성과
영상레이더위성
특징 비교

광학위성(E0)



전자기파 가시광선

장점 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한 영상촬영 가능

단점 야간, 악천 후 시 촬영 어려움

활용 위성지도 제작, 농업, 산림관측 등

영상레이더위성(SAR)



전자기파 마이크로파(C, P, L, X 밴드 등)

장점 야간 및 악천 후에 관계 없이 촬영 가능

단점 광학위성 대비 낮은 선명도

활용 수자원, 수재해, 국방, 재난 등 상시 감시

기후재난 예측과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체계 구축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위성을 활용한 국제 연구개발 협력과 기술 수출을 확대하여 기후테크 산업 강국의 입지도 다질 계획이다. 17개국이 참여한 위성 기반 재난 대응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와 공조해 홍수, 지진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기후재난에 대한 위성 정보를 수신·전달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위성 정보를 활용해 2023년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댐 붕괴에 따른 홍수피해 분석, 모로코 지진피해 분석자료 등을 제공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사업에도 참여해 독일항공우주청(DLR) 등과 함께 글로벌 위성 기반의 기후변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지역에 구축 중인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과도 연계하여 위성 기반의 홍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위성 영상 분석기술의 수

출 모델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산업 국제 정보분석기관인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는 앞으로 미래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 1조 8천억 달러 중 69%가 폭우, 홍수, 가뭄과 같은 물 관련 문제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분야로, 수자원 전용 위성과 영상분석기술은 미래 물 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세종시에 수자원위성의 지상 운영을 위한 수자원 위성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은 2027년 발사될 수자원위성의 정보를 수신하고 분석하며 홍수·가뭄 등 수재해와 수질, 수자원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위성을 활용한 초정밀 물 재해 관리기술로 물 분야 기후대응의 국제협력과 기후테크 시장선도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신도시 물관리의 핵심 솔루션을 제시하다

필리핀 신도시 물 인프라 혁신 파트너

필리핀 미군 반환기지 지역에 조성 중인 신도시의 물 인프라 혁신 파트너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관리의 핵심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로써 필리핀 신도시 개발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필리핀 뉴클락시티 SWNM 플랫폼 구축 예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 인프라 구축

지난 4월 22일 필리핀 클락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지전환개발청(BCDA)을 비롯해 산하 기관인 포로포인트관리공사(PPMA), 존헤이관리공사(JHMC), 팜파가주 정부와 함께 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신도시 개발의 핵심지역에 초격차 물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필리핀 정부는 1992년부터 미국에서 반환받은 전략기지를 신도시로 전환하고자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수빅, 클락, 보니파시오 등 주요 지역의 개발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는 뉴클락시티 개발을 중심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도시 개발에는 물 문제 극복이 관건이다. 필리핀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 변화, 가뭄 및 홍수 등의 극심한 재해를 겪고 있는 데다, 관정 난개발, 상수도 부족 문제로 인해 상수도 보급률이 약 40%에 불과하다. 이번 협약 대상 지역인 팜파가, 라유니온, 벵게트주 또한 지하수 오염, 노후화된 수도관 등 복합적인 물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관리 문제의 해결사로 나선다. 스마트 관망 관리(SWNM) 등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필리핀 각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현지 조사, 시설진단, 수자원 개발 방안 수립 등을 비롯해 실질적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스템을 지원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 등을 견인할 계획이다.

뉴클락시티 조감도 ©newclark.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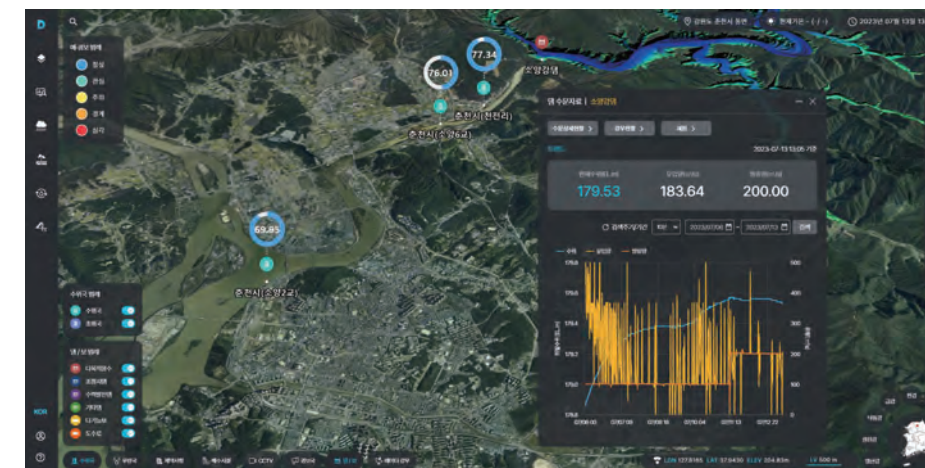




물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국제 국회의장단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물 문제가 글로벌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 4월
국제 국회의장단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 물종합상황실을 찾았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트윈 시연 화면

국제 국회의장단, 물 협력 체계를 강화하다

기후위기 속에서 물 문제 해결이 국제적 과제로 여겨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 캄보디아, 콜롬비아 등 세계 36개국 전·현직 국회의장으로 구성된 국제 국회의장단이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물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 물관리 기술을 견학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된 자리로, 이 자리에는 파키스탄 전 총리이자 현 상원의장인 유수프 라자 길라니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 12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석대 사장은 국제 국회의장단 대표단에게 물관리 디지털트윈,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직접 소개했다. 그중 '물관리 디지털트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적으로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선도

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로 이미 5대강 유역에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기술로 촉망받고 있다. 이에 대표단은 물종합상황실에 구현된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반 시스템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부-국제기구-민간기업 중심 국제협력 채널을 의원외교 채널까지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윤석대 사장은 "이번 국제 국회의장단 방문을 글로벌 협력 확대의 계기로 삼아 물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과학적 통합물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류를 활발히 하며 물 문제 해결에 앞서나갈 계획이다.

NEWS

K-water Monthly Magazine
2025. 05 | Vol. 686

01 산불재난지역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재난에 있어 사상 처음으로 화재 진압 용수 공급을 위해 성덕댐, 안동댐 등을 방류하며 소방 용수를 지원했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 지자체에 9만여 개의 병입 수돗물을 긴급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 동참했다.

이후 지난 4월 2일에는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후속 지원에 나섰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청송군, 하동군, 울주군 등 4개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생필품과 의료서비스 등 구호 물품 후속 지원, 상수도 시설 응급복구를 추진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K-의료사랑방 의료버스를 투입해 기본 검진, 재해 트라우마 상담 등을 시행했다. 또한, 산불 이후 토양이나 재료 인한 녹조 발생 우려에 따라 수질 악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02 네이버와 ‘물관리 디지털트윈’ 활용 업무협약 체결



지난 4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네이버와 함께 ‘ESG 기후공시 의무화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물재해 리스크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기후위험 및 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적 평가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상장사들이 쓰는 기존 위험 평가 모델은 해외기관 의존도가 높거나, 과거 통계 중심으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술을 네이버의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와 결합하여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및 도시침수에 대한 사업장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물재해 리스크 평가 결과를 시각화한다.

평가 결과는 이르면 올해 완료되며, 이후 홍수 외의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위험 요소로 평가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03 우크라이나 주거 복합형 스마트 도시개발에 협력

지난 4월 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호로독시 신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인 유럽투자지주유한회사와 스마트 도시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월 호로독시 지방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어, 신도시 개발사업 계획과 참여 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10km² 부지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구상하게 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산업, 주거, 상업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도시 개념으로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모델이다.



04 ESG 경영 종합대상 수상

한국수자원공사가 ESG 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공기업 최초로 물 특화 ESG 경영을 선언했으며, 2023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신비전 아래 물 서비스 전 과정에서 ESG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SOC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후테크 기업으로서 오는 2035년까지 ‘글로벌 Top 2 물기업 진입’이라는 목표로 달려갈 예정이다.



05 2025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대상 수상

한국수자원공사가 2025 국가산업대상에서 경영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선정하는 ‘국가산업대상’은 각 산업 분야에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비전과 경쟁력, 사회적 기여도,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초격차 기술을 통해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물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관련 기술을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기후변화와 러브버그



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러브버그는 익충일까요, 해충일까요?

러브버그는 익충일까요, 해충일까요? 최근 정부와 일부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러브버그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직접 러브버그 떼를 목격하고 눈살을 찌푸린 기억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정식 명칭이 붉은등우단털파리인 이 친구들은 짹짹하는 암수가 꿈무늬를 연결시킨 채 비행해 러브버그란 별칭이 생겼습니다. 원서식지는 중국 동남부와 대만으로, 우리나라에선 2015년 인천 산곡동에서 첫 관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여름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떼로 출현해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아직 5월이지만 벌써 일부 지역 낮 기온은 3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민들은 러브버그를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뜻입니다.

보통 6월이면 러브버그가 대발생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발생이란 생물이 환경수용 능력 범위를 벗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쯤이면 감 잡으셨겠지만, 러브버그 대발생도 역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대개 전문가들이 한반도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성으로 변화하면서 러브버그가 대량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쟁이 벌어진 건 대책을 놓고서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러브버그와 같은 대발생 곤충을 방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였습니다. 올 2월 서울시가 '곤충으로부터 쾌적한 도시 서울 만들기,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통합관리계획'을 내놔고, 3월에는 서울시의회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가 러브버그 등을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이라 규정했는데, 환경단체가 "서울시가 인간의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태계에 이로운 곤충도 방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반발한 겁니다.

실제 러브버그는 그간 계속 '익충'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지도 않고 질병도 옮기지 않는데 진드기 박멸, 환경 정화 등 이로운 측면이 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 공존을 도모할 수 있단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만 익·해충 구분은 본디 철저하게 인간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나뉘지는 겁니다. 다른 종에게 해가 되더라도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면 익충이고, 다른 모든 종에 이익이 되더라도 인간에게 해가 된다면 그건 해충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레 그 구분은 만고불변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상 증식으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불편을 호소한다면 그 자체로 방제가 필요한 해충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시각에 따른 겁니다. 실제 지난해 5월 서울시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러브버그가 '해충'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86%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러브버그는 익충일까요, 해충일까요? 저는 아직 쉬이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주범, 기후변화에 대해서만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폭염·홍수·산불 등 대형 기후재난과 비교하면 어쩌면 소소해보이기까지 하는 '러브버그'라는 숙제 하나를 푸는 데도 이리도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단 사실입니다. 이제는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기가 됐지만 애초에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 산업화 이후 급격한 탄소 배출을 초래한 인간활동이란 것까지 떠올리면, 이 글을 어느 독일 철학자의 저서 제목을 빌려 끝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위기란 식으로 말입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위기

커피가 사라진 세상

‘모닝커피’ 또는 ‘식후 커피’가 당연한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이 공식은 곧 깨어질지도 모른다. ‘커피가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라. 식사를 하고 나서 입가심으로, 노곤노곤 잠이 올 때, 피로가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 커피 없이 어쩌면 좋을까?

글. 조수빈

멸종 위기에 빠진 커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동식물에게 ‘멸종위기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반달가슴곰, 수달, 저어새 등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대표 멸종위기종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자연기금(WWF)이 커피를 ‘5대 멸종위기 작물’로 지정했다.

좋은 원두는 꽤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재배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커피 품종인 ‘아라비카’는 해발 1,000~2,000m 고원지대, 연평균 기온 23℃, 연간 2,300시간의 일조량, 60% 정도의 습도 등의 조건이 따라줘야 한다. 그러니 기후위기 속에 커피의 씨가 서서히 말라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지도 모른다. 격변하는 기후는 원두의 수확 시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급증하는 병충해는 원두의 재배 면적을 감소시킨다. 일교차가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커피나무는 낮에는 온도가 높고, 밤에는 서늘한 날씨를 유지해야 열매가 서서히 숙성되면서 원두에 영양분이 채워진다.

영국과 에티오피아 공동연구팀은 지속적인 기후변화, 삼림 채벌, 식물 병해 등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상당수의 커피 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커피 재배지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080년에는 커피나무가 멸종될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앞서 말한 ‘아라비카’ 역시 향후 60년 안에 멸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원두 가격은 5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무섭게 치솟는 중이다.



여유가 필요한 건 과연 누구일까

이른 아침 피곤함을 달래 주는 모닝커피,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 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날 몸을 녹여 주는 따뜻한 라떼 한잔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러니하게도 커피 마시는 양을 줄여야 한다.

커피는 대표적인 탄소 배출 식품으로 분류된다. 원두가 커피 한잔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뿜어낸다. 커피 1kg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운송하는데 평균 17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는 소고기, 양고기, 치즈, 초콜릿 등과 견줄 만한 탄소배출 수치다. 커피 한잔으로 환산하자면 한잔에 탄소 배출량이 300g인 수준이다. 우리나라 연간 커피 소비량이 평균 400여 잔임을 고려하면 한 사람이 1년간 마신 커피에서만 총 121kg의 탄소가 배출되는 셈이다.

그러나 매일 같이 고단해지는 우리네 삶은 커피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체 커피 시장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대체 커피 기업들은 대추 씨, 치커리 뿌리, 포도 껍질, 해바라기 씨 껍질 등을 원료로 사용해 천연 카페인을 구현하거나, 기존 커피 원두에 치커리를 혼합하는 등으로 커피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커피 원두 대비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현저히 줄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맛도 제법 좋단다.

일상 속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하루 정도는 건너뛰어 그 여유를 자연에게 줘 보자. 기꺼이 양보한 마음이 훗날의 소중한 커피 한잔으로 되돌아올 테니까.



비눗방울의 신비로운 비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비눗방울은 풍경을 순식간에 동화의 한 장면처럼 바꾸어 준다. 이 놀라운 현상은 ‘마법’이나 ‘마술’보다는 ‘과학’과 가깝다고 한다. 비눗방울에 숨은 비밀을 파헤쳐 보자.

글. 편집실

동그란 막대기를 비눗물로 적신 다음 원 사이로 숨을 ‘후’ 하고 내 뱉으면 무지갯빛 비눗방울이 만들어진다. 하늘을 수놓은 비눗방울은 잡힐 듯 말 듯 날아가다 뽕 하고 터져버린다. 우리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비눗방울에는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다.

먼저 비눗방울이 동그란 이유는 ‘표면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액체 분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풀잎 위의 물방울이나 처마 끝의 빗방울이 동그랗게 맺히는 이유도 표면장력 때문이다. 그런데 단순히 ‘물’을 가지고는 비눗방울을 만들기 힘들다. 물방울은 표면의 두께가 얇아 금방 터지기 때문이다. 비눗방울을 만들고 싶다면 계면활성제 성분을 가진 비누나 세제를 물에 섞어주면 된다. 계면활성제가 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표면장력을 줄여주고, 방울 표면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비눗방울 공연을 보면 누군가는 사람 키를 훌쩍 넘길 만큼 큰 비눗방울을 똑딱 만들어내고, 표면 사이로 손을 쓱 집어넣었다가 뺏는데도 터지지 않는 마술을 보여주기도 한다. 비눗방울을 만드는 데도 실력이 필요한 걸까? 이 또한 과학의 원리를 잘 사용하면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비법은 비눗물에 글리세린이나 설탕, 올리브당 등을 추가하면 된다. 이 요소들은 물이 쉽게 증발하는 걸 막아 비눗방울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비눗방울이 터지지 않게 풀칠을 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숨은 비밀을 알았으니 이번 주말에는 공원에 나가 평소보다 더 크고 멋진 비눗방울을 만들기에 도전해 보자!

★방울특파원★

#방울기자의 #최신소식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이은지 코치에게 배우는 드리블의 정석

내 동년배들 전부 슬램덩크 보고 자랐다!
평균 구력 17년차.
K-water 직원들의 실력 볼내기

#K-수포츠 #팀워크UP

#스킬UP

WWW.YOUTUBE.COM/KWATERTV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황사&미세먼지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보내기

#짧은시간한기
#적정실내습도유지
#에어코리아누리집

X(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미세먼지를 대하는 방울이의 자세

#공기정화
#반려식물

페이스북

WWW.FACEBOOK.COM/ KWATERWORLD



개방형 혁신 R&D 연구주제를 공모합니다

#혁신R&D
#기후위기대응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

#요알못
#레시피꿈꿔하기

4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O영(6032)

봄을 맞아 사무실이나 집에서 취미로 기르기 좋은 식물을 추천해주어서 유익했어요. 식물의 성장에도 깨끗한 물이 필수라는 내용을 보며 '역시 우리가 사는데 수자원이 무척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O비(7948)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는데 그 과정을 글로 읽어보니 영상으로는 잘 와닿지 않던 무게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왠지 마음에 큰 울림이 오는 것 같아 한참 읽고 또 읽었네요.



조O원(6499)

할짝 웃고 있는 신입사원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 짓게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넘어 우리나라의 맑고 깨끗한 내일을 책임지는 소중한 인재들이 지금 이 순간의 각오와 다짐을 잊지 말고 새로운 물길을 열길 응원합니다!



김O희(9721)

한 해 동안 무려 8만 톤의 의류가 버려지는 현실 속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중고의류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솔로몬, 필리핀 등 여러 나라로 의류를 전달했다고 하니, 이 훈훈한 캠페인을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임O현(2679)

담양에 간 적이 있는데 '다시갈지도' 글을 읽으니 뭔가 제대로 즐기고 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녹원에서의 족욕, 메타세쿼이아랜드의 맨발 걷기, 자전거 타고 달리는 영산강! 다시 꼭 한 번 방문해 보아야겠어요.



EVENT 01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트콘 10명



정O원(5155)	임O진(5230)
노O지(2270)	장O지(2793)
박O원(2108)	전O심(2291)
김O덕(6321)	예O완(6990)
김O은(6225)	박O호(6321)

EVENT 02

소등 챌린지

이벤트 경품

천연비누 10명



강O림(7321)	이O(3281)
이O희(2635)	장O기(2810)
김O향(6791)	장O선(2883)
김O홍(6192)	장O아(3470)
오O경(3175)	황O수(0995)

EVENT 03

편지지 인증샷 이벤트

이벤트 경품

방울이 유리컵 5명



김O현(2036)	조O길(5037)
임O영(0440)	최O별(2566)
정O정(5104)	

※5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EVENT 0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5월호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만 원권(5명)

접수 마감일

5월 20일

선물 발송일

5월 31일



응모하기

검색창에 한국수자원공사 웹진을 검색해 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EVENT 02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다음 이모지를 보고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모는 2027년 물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세계 최초 OOOOO이 발사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참여방법

-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 2 1:1 채팅방 클릭
- 3 정답/성함/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트콘(10명)

접수 마감일

5월 20일

선물 발송일

5월 31일



응모하기

방울이 편지지 활용법

편지지란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공간이지만, 독자들에게 방울이 편지지는 마음을 담은 공간 그 이상의 의미다. 공간을 꾸미는 멋진 장식품이자 아끼는 애장품이자 자랑하고 싶은 작품이기도 한 독자들의 방울이 편지지 활용법을 소개한다.



김O현(2036)
방울이 편지지 덕분에
파릇파릇해진 나의 컵홀데!



임O영(0440)
맑은 물의 왕자 방울이 덕분에
반려식물이 더 상싱해 보여요



정O정(5104)
제가 아끼는 녀석들을 모이둔
최애존에 방울이도 입성 완료!



조O길(5037)
방울이 인형과 편지지를 함께
장식해두었어요. 근사하죠?



최O별(2566)
우리 아들의 편꾸(편지지
꾸미기) 실력 어떨까요?



어버이날편 방울이 편지지

내 맘대로 활용하는 인증샷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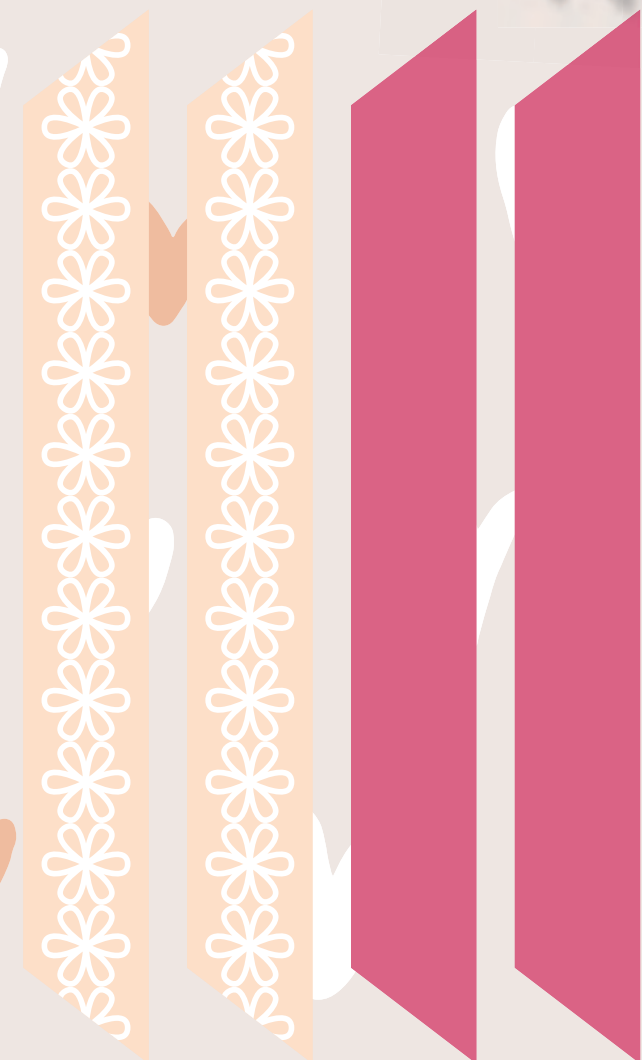
방울이 편지지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방울이 유리컵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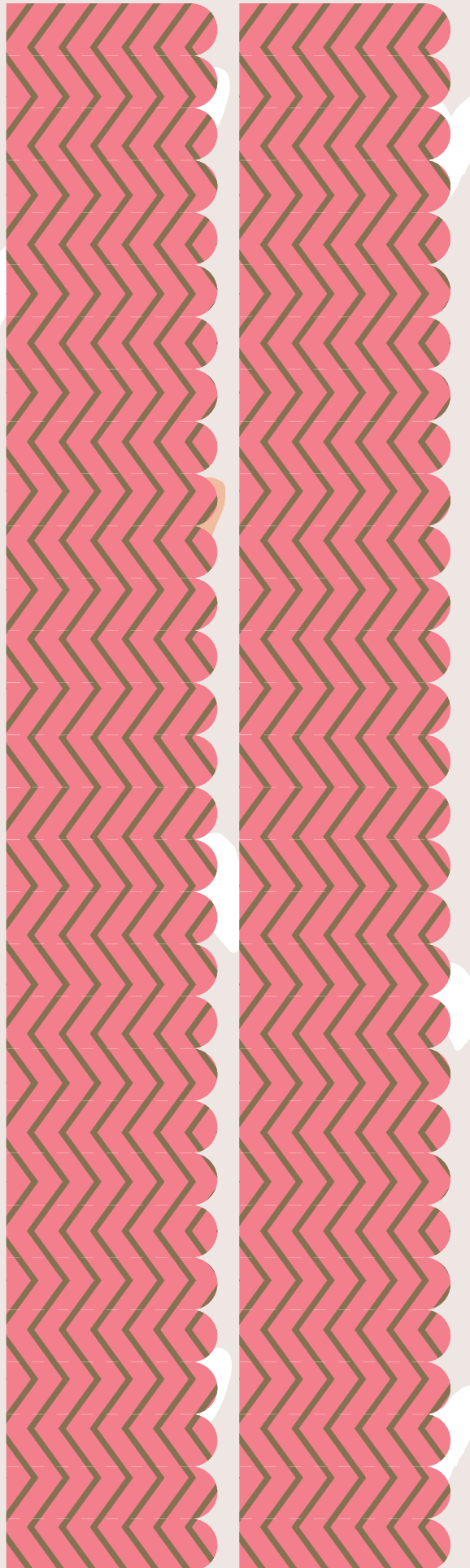
응모하기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5월 20일
선물 발송 5월 31일

경품
방울이 유리컵
(5명)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편지지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한국수자원공사 광고 EVENT

〇〇로, 〇〇으로, K-water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고 영상을 보셨나요?

영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맑은 물로 만든 세상에서 뛰어놀고 있는데요.
‘〇〇로, 〇〇으로, K-water로!’ 빈칸에 들어갈 노래 가사를 맞춰 주세요.
두 단어를 모두 맞춰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HINT

“30초를 주목해 주세요!”

광고영상
보러 가기

참여 방법

STEP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구독 QR

STEP 2

1:1 채팅방 클릭



STEP 3

정답 제출

정답/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10명)

접수 마감 5월 20일 / 선물 발송 5월 31일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